

금호타이어, 해외생산 확대로 성장세

한국증권, 2007년 중국 생산량 2100만본 ... 베트남공장도 2008년 완공

한국투자증권은 3월7일 금호타이어에 대해 중국 생산량 확대로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매수> 투자의견을 유지했다.

서성문 애널리스트는 “중국 생산량이 2006년 1500만본에서 2007년 2100만본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진이 높은 수출대행물량이 크게 증가해 2006년 악화됐던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2006년 7월 준공한 Teijin 공장의 생산량이 2006년 200만본에서 2007년 700만본으로 늘어나고, 6월말 준공되는 창춘공장에서도 100만본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08년 1/4분기에는 315만본에 달하는 베트남 공장이 완공돼 전체 생산능력 중 해외생산 비중이 2007년 40.4%, 2009년에는 51.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성문 애널리스트는 예상치를 밑돈 2006년 4/4분기 영업실적을 감안해 목표주가는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진한 실적이 2007년 1/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2/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07>